

광주지검 “마을변호사제 많이 이용하세요”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해수)은 28일 오후 지검 9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변호사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민들과 변호사간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된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생존경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사무실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지역민들의 인식을 개선해 국민 공감대를 얻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는 게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이다.

◇전남 231개 읍·면·동, 78명 마을 변호사=2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 마을변호사가 위촉,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라망이 구축됐다. 마을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만 전국적으로 1501명에 이른다.

법조계에서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정착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 홍보 부족으로 꼽고 있다. 광주지검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28일 열린 ‘마을변호사 설명회’를 통해 전남지역 읍·면별 이장단장, 주민자치위원장, 담당 공무원 등 44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 제도의 이용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지검은 또 지역민과 마을 변호사가 직접 법률 문제를 상담하는 자리도 마련, 제도 홍보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장흥과 강진에서 지난해 11월부터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는 김정웅(39) 변호사의 경우 지역 정서와 지역민들과의 교감을 늘리면서 지역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김해수 광주지검장은 “전국 모든 읍·면에 마을변호사가 배치되는 등 무료 법률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지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입된 지 2년 넘었는데=광주지검이 법무부와 함께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활성화에 나선 데는 도입된 지 2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지역민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광주지검은 28일 오후 광주시 동구 광주지방검찰청 9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전남지역 공무원·이장 등 4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민과 함께하는 마을변호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읍면 이장·공무원 등 440명 초청 설명회 ‘농촌지역 법률 서비스’ 활성화 위해 적극 나서

작을했기 때문이다.

당장, 신안군 팔금면 이장 김석진(56)씨는 “도입될 때만 해도 지자체가 홍보하는 것 같더니 사그라들어 이제 마을 변호사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주민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면사무소 민원실에는 ‘마을변호사’와의 상담을 위해 필요한 ‘법률상담신청서’조차 비치돼 있지 않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무료법률상담과의 차이점도 크지 않아 굳이 마을 변호사를 찾아 나서는 데 번거롭다고 여기는 주민들도 많다.

전도군 관계자는 “지난 3월 면사무소로

발령, 마을변호사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지만 여태껏 상담 신청을 받은 건수는 한 차례도 없다”면서 “마을 변호사제도에 대한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한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제도 취지를 알리고 설명회조차 할 공무원에게조차 낯선 제도였다는 얘기도

여수에서 마을변호사를 신청한 A변호사는 “한 달 동안 접수된 상담건수는 1~2건으로, 그나마 팩스나 전화로 소송절차 등 간단한 내용을 상담하고 실제 소송은 다른 변호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안도 다양하다. 우선, 서울에 연고를 둔 변호사가 지역 마을변호사로 등록돼 있는 경우도 있어 지역민들에게 밀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들다는 지적도 많다.

‘생존경쟁’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서도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85% 이상이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85% 이상이 편중돼 있는데 따른 문제점이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한편,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전남 231개 읍·면·동에 위촉된 마을 변호사를 78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해남·장성 8명 ▲나주·보성 6명 ▲광양·고흥·화순 5명 ▲장흥·강진·함평·완도 4명 ▲여수·순천·신안 3명 ▲영광·진도·영암·무안 2명 ▲담양·곡성 1명 등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1 | 해질 19:39 | 달뜨기 15:24 | 달지기 02:34

굿바이 5월

동해상의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7/33	보성	맑음	11/28
목포	맑음	16/25	순천	맑음	15/30
여수	맑음	17/25	영광	맑음	13/30
나주	맑음	12/33	진도	맑음	16/25
완도	맑음	16/26	전주	맑음	16/32
구례	맑음	11/31	군산	맑음	17/30
강진	맑음	15/28	남원	맑음	15/31
해남	맑음	15/28	홍산도	맑음	15/21
장성	맑음	12/32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해	동~남동	0.5	동~남동	0.5~1.0
남부	남해	동~남동	0.5~1.0	동~남동	0.5~1.5
남해	남해	동~남동	0.5~1.0	동~남동	0.5~1.0
서부	남해	동~남동	0.5~1.5	동~남동	0.5~1.5

◇생활지수

수면	10
운동	40
빨래	9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0:44	23:38	04:22	16:40
여수	05:57	18:50	12:10	23:57

◇주간 날씨

30(토)	31(일)	6/1(월)	2(화)	3(수)	4(목)	5(금)
19/23	17/30	16/30	16/30	18/28	18/27	16/28

광주·전남 주말 단비... ‘5월 폭염’ 꺾이나

5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던 광주와 전남에 주말 단비가 내리면서 잠시 더위를 식힐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30일 광주·전남지역은 제주도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다”고 28일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10~40mm.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16~19도, 낮 최고기온은 20~23도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5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오전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5~18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기온이 평년치에 비해 1~4도량 높여 다시 더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30일 비가 그친 뒤 건조한 대기 상태가 계속되면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광주 양동교 인근 땅꺼짐 원인

아스팔트 아래 토사 유실 탓

지난 27일 발생한 광주시 서구 양동교 인근 도로 땅 꺼짐 원인(포트홀)은 토사가 유실된 도로 밑 공간 위를 뒤덮은 아스팔트가 무더위에 연약해져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서구는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양동교 사거리 인근 도로 복구공사를 마쳐 차량이 정상 소통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서구 양동교 앞 도로에서는 전남 오후 3시께 지름 50cm, 깊이 50cm 크기의 구멍이 뚫렸다. /김형호기자 khh@

전남도내 해수욕장 개장 한달 늦어진다

안전관리업무 지자체 이관따라

올해부터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가 해경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전남지역 해수욕장 개장시기가 예년과 비교해 한 달 가량 늦춰지게 됐다.

늦은 전남도에 따르면 완도 명사십리와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이 다음 달 26일 각각 문을 열어 전남 해수욕장 중 가장 빨리 개장한다. 대부분 해수욕장은 7월3~11일에 개장한다.

지난해 일부 해수욕장 개장 시기가 5월

말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가량 개장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올해부터 안전관리 업무가 해경에서 지자체로 넘겨짐에 따라 안전요원과 장비 등을 확보하려고 지자체별로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우선 지자체별로 정부로부터 소모 안전 교부세를 지원받아 해경의 구조업무를 대신할 전문가들을 채용하기로 했다. 또 구명보트와 제트스키 등 구조장비를 별도의 예산으로 구입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안전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함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해수욕장 개장시기가 20일 이상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전남지역 주요 해수욕장 운영 일정은 다음과 같다.

▲여수 만성리 검은모래(7월11~8월23일) ▲보성 울포솔밭(7월3~8월16일) ▲해남 땅끝송호(7월3~8월16일) ▲무안 톱머리(7월11~8월16일) ▲함평 돌머리(6월26~8월23일) ▲영광 가마미(7월5~8월31일) ▲완도 명사십리(6월26~9월6일) ▲진도 관매도(7월10~8월30일) ▲신안 우전(7월3~8월31일) ▲신안 흥도(7월3~8월23일)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해수욕장 안전요원 통제 불응땐 과태료 최대 10만원

몰카·성추행 단속팀도 운영

올여름부터 해수욕장에서 안전요원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몰카’와 성추행을 집중 단속하는 성범죄전담팀도 운영된다.

국민안전처는 28일 ‘해수욕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괄기관이 구(舊) 해경에서 자치단체로 옮겨 바뀐 데 따른 조치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맡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인력은 작년 하루 평균 870명에서 올해 407명으로

줄어든다. 인력 감소분(하루 평균 463명)을 메우기 위해 소방본부에서 119시 민수상구조대를 하루 평균 297명 늘리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민간 안전인력을 확보한다.

인력 축소로 질서가 문란해지지 않도록 각종 불법행위에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이다. 부과 대상은 공무원이나 민간 안전관리요원의 ‘입수 통제’ 지시 불응과 쓰레기 무단투기다.

경찰은 성범죄전담팀을 발족해 성추행과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연합뉴스

행복파트너 1355 국민연금 콜센터 국민연금 전주시대 개막! 광주일보 20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NPS 국민연금공단 National Pension Service

세대에서 세대로

함께 웃으며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무한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 모두는 활짝 웃습니다

세대를 이어가는 행복한 노후

행복노후설계센터
전국 152개 행복노후설계센터에서 국민연금 관련 상담은 물론
재무, 건강, 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설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